

교통수단으로 본 가상 공간과 권력 분산

양명수

(이화여대 교수/ 기독교윤리, 조직신학)

현대 형법의 아버지 베카리아는 인쇄술의 발달이 가져온 권력 분산에 대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 “법률이라는 신성한 기탁물을 특권자의 손에서 공중의 손으로 되돌린 것은 인쇄술이 발명된 덕택이었다. 문명의 빛을 견뎌낼 수 없는 음모와 흉계의 암흑 정신을 추방시킨 것은 인쇄술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있어서 그 옛날 우리 선조를 위협하던 흉악법이 이전보다 감소되었다면 이는 인쇄술의 덕분이다. 또, 우리의 선조를 압제자로 만들기도 하고 노예로 만들기도 하던 야만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도 인쇄술의 덕분이다”¹⁾ 인쇄술의 발달로 법률이라는 정보가 대중에게로 넘어갔고, 그만큼 권력자들만 알고 마음대로 처벌하던 악한 관행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정보가 집중된 만큼 특권층이 생기고 정보가 유통되는 만큼 인간은 평등해진다. 권력은 정보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어느 집단에서나 고위

1)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김봉도 역(서울: 박문각, 1995), 28-29.

층이란 결국 고급 정보를 가진 자들을 뜻한다. 정보는 힘이다. 그런 점에서 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보화 사회는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진 민주 사회를 꿈꿀 만하다. 그러나 그야말로 꿈에 그치는 것일까? 정보화 사회의 미래를 권력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가상 공간이 탁월한 교통 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다소 신화적이고 철학적인 '교통'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가상 공간의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고 한다. 인터넷과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다른 견해들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며 어느 쪽도 일리가 있지만, 이 글에서 우리는 권력 분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각시키면서 얘기하려고 한다.

1. 세계화와 교통

오늘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보편 문명을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보편 문명이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말이지만, 인류가 하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분명히 진보다. 그것은 지구상의 여러 민족이 풍습과 언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교통이 가능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세계화는 모든 문명권들의 교통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자연과의 교통은 별개 문제로 하더라도, 인류라는 종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 집단이 (대개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 활발히 교통한다는 것에 세계화의 긍정적인 미래가 있다. 교통은 새로움을 놓고 화해를 낳기 때문이다. 어떤 동물학자가 말했듯이, 알면 사랑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교통은 타자를 통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인간의 영원한 목적인지 모른다. 교통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서로 통한다는 것,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 '교통' 그리고 '하나'는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사랑하는 연인은 하나가 되길 바라고, 에로스는 남녀가 서로 통하여 하나되는 것이며

동시에 진리와 통하여 하나되는 것이다.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는 것은 모든 생명체 개체 내부의 생명의 과정이며, 개체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의 번영의 길 역시 개체들의 분열을 극복하는 데 있다. 교통은 다양성을 분열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로 통하여 하나되는 것은 삶의 길이요 삶의 번영의 길이다. 교통이 이루어지는 곳에 비폭력이 있고 화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다. 통하지 않을 때 폭력이 발생한다. 교통은 비폭력을 실현하는 점에서 인류의 목적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움이 가능해 진다. 타자성에 직면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비약을 뜻한다. 타자를 거친 자아는 아이덴티티의 위기를 겪지만 동시에 자기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해질 기회이기도 하다.²⁾ 그렇게 해서 분명해진 자기 정체는 타문화와 만나 새로운 상상력을 일으킨다. 죽은 전통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전통이 되는 셈이다. 새로움이 가져오는 생명력은 교통에 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이 만날 때, 각자의 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타문화의 여러 요소와 조합을 이루어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생긴다.

세계화는 교통 수단의 발달에 토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교통 수단의 발달이 보편 문명을 주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통 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세계는 사는 모습이 비슷비슷해졌다. 근대 과학이 보편적인 사고 방식을 가능하게 했고 보편적인 삶의 형태를 가져왔다면, 과학이 낳은 현대 기술의 발전의 핵심은 교통 수단의 발전이다. 과학이라는 앞은 더 멀리까지 내다보고 직접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러한 직접적인 앞의 욕망은 교통 수단의 발전을 가져왔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한 이후 사람은 달까지 가는 수단을 발전시킨다. 옛날 같으면 며칠을 걸려 갈 이웃 나라를 몇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교통 수단

2) 헌팅톤은 『문명의 충돌』에서, 기술 문명의 수입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서구화되어 가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고유 문화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의 발달이 없었다면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낮은 영역 또는 낮은 존재 곧 타자와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인류가 서로 교류하고 상대하는 횡수가 많아지고, 삶의 방식 자체가 교류와 교통을 중심으로 엮여지게 된다. 한 장소에 정착하는 것보다 왕래와 운동을 중심으로 개인의 삶이 변동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태어난 장소에서 평생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아파트의 주거지를 수없이 옮겨다니며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직장마저도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여러 군데를 옮겨다니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동양에서나 서양에서나 과거에는 운동은 정지 상태보다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었고, 이른바 정중동(靜中動)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 방식이었다. 그러나 교통 수단의 발달로 운동력이 질적으로 비약하면서 행동력과 순발력을 높여 평가하게 되었다. 사실 근대 과학 자체가 운동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을 발견하면서 성립되었으니, 운동과 이동은 현대 문명의 가장 뿌리깊은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동의 법칙을 이용해 만든 기관들은 모두 곧바로 새로운 교통 수단으로 등장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교통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교통 수단이라고 하면 자동차나 비행기를 생각하지만, 거리를 좁히는 면으로 볼 때 컴퓨터의 가상 공간은 뛰어난 교통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엔진 기관은 먼 거리를 빨리 가도록 인류를 인도했지만, 컴퓨터는 엔진의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거리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행기가 짧은 시간에 멀리 가는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면 가상 공간은 이동하지 않고 타자와 접촉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물론 그것은 교통 수단이 아니라 통신 수단이다. 그러나 통신 수단은 크게 보면 교통 수단의 일부다. 사람과 사람이 교통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가상 공간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정보화 사회는 정보 통신 사회다. 빨리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았지만, 초고속망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의 고속도로도 생겼다. 거리를 좁혀 나가다가 아예 거리를 없애 버린 셈이다. 물론 몸과 몸

의 만남이 없는 교통의 영역에 제한된 것이지만 말이다.

여하튼,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이 인류의 교통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권력 분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은 인간의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단을 확보했다고 해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단과 도구의 발전은 그 자체가 권력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서구 제국주의는 교통 수단의 발달로 타문화권을 만나면서 그들을 정복했다. 증기 기관과 항해술의 발달로 교통 수단이 발전했지만, 그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교통이 아니라 일방적 침략이다. 증기선은 분명히 발달된 교통 수단이지만 그 교통로를 따라 국제 관계에서 권력의 확장을 가져온 것이다. 오늘날에도 교통 수단은 주로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면서 그들의 국민이 타문화를 가서 보는 데 이용되고 있다.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민족의 삶을 만나는 것이 좀처럼 힘든 일이다. 그래서 교통 수단의 발전은 결국 교통이라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 수단을 발전시킨 서구 유럽의 지배를 가져왔다. 그리고 서구식의 사고 방식과 제도를 전파하고 식민지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어쩌면 교통로라는 것이 처음부터 힘있는 쪽의 정복의 목적을 위해 개척되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무엇보다 먼저 물질이 오가는 무역을 위해 개척되었을 수 있다. 교통을 하려고 교통로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자원을 찾고 물질을 얻기 위해 길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육로나 해로나 항공로나, 길은 결국 도(道)가 아니던가. 삶은 삶 이상이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를 수도 있다. 서구에서 교통 통신 수단을 무슨 목적으로 발전시켰든 간에 그것이 교통 수단인 한, 인류의 교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인간 사회에서 권력 관계란 사라질 수 없고 따라서 교통 수단이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교통 수단은 진정한 교통을 통한 인류의 화합에 이바지한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근대에 비약적으로 발달된 교통로가 서구 열강의 침략의 통로가 되었듯이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교통로는 서구 자

본주의를 앞세운 서구 문화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 국가 안에서 가상 공간은 중앙 권력의 고도의 감시 장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한 정보 분산을 통해 국가 권력을 약화시키고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올 것인가.

2. 정보 사회와 질차적 민주주의

인류가 개발한 뛰어난 고속도로인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오가는 것은 정보다. 정보는 어디에 쓸 지식이다. 어디에 쓰이려고 날개를 달고 있는 지식이 정보다. 어떤 세포의 유전자 지도를 만든 것은 과학적인 작업이지만, 그것이 장기를 치료하는 의료 산업과 연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면 유전자 정보가 된다. 오늘날 모든 과학적 발견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발견이 아니라 실용성과 연관되어 산업화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는 모든 지식을 정보로 만드는 사회다. 그리고 지식이 생길 때 처음부터 정보로서 탄생한다. 모든 지식을 정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지식이 곧 생산력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문화에 관한 지식도 문화 산업과 연결되어 부가 가치를 생산한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다. 생산력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 체계는 정보 유통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다. 부가 가치의 생산에서 지식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커진다. 모든 지식이 물질적인 생산을 담당할 정보가 되면서 인류의 물질적인 풍요는 꽤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정보화 사회는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다.³⁾ 그래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자본의 횡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3) 원래 근대 지식은 마음이 아닌 물질에 대한 탐구와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고 정신 세계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관계할 뿐이다. 물질 조건의 개선이 정

뒤에서 가상 공간이 이루는 권력 분산의 가능성을 볼 것이다. 그러나 하버마스에 따르면 근대에 국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출현한 공공 영역이 자본의 힘으로 시장의 권력의 장이 되면서 쇠퇴했다고 하지 않는다. 정보화 사회 역시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사회라면 결국 자본 특히 미국식 자본의 횡포의 장을 열어준다는 얘기가 아닌가.⁴⁾ 그렇다면 한 사회 안에서나 국제적으로 권력의 분산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기대가 아닐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주목하면서도 여기서는 다른 가능성을 얘기하려고 한다. 근대 시민 사회의 시도와 좌절을 염두에 두면서, 가상 공간이 뭔가 권력의 분산에 이바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⁵⁾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실용적인 사회로 본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사실 실용성이란 정치적 관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 세계는 정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결국 물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정치적 의사 표시의 대상이다. 이제 가상 공간이 교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얘기를 계속해 보자.

적어도 근대의 교통 수단은 한 사회 안에서의 민주화에 이바지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교통 수단의 발달과 함께 그 자유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발달과 함께 국민을 주권자로 만들 수 있었다. 국민 주권의 확립은 인류 역사에서 권력이 분산되는 중요한 계기다. 주권이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 세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는 근대 이후 물질의 증가로 말미암아 잉여 가치를 확보한 대중이 문화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가 물질적 관심과 관련해서 나온 것이라고 해서 꼭 물질제일주의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4) 니시가가 토오루, 『인터넷의 미래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93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6, 가을), 여기서 저자는 인터넷을 미국이 주도하는 전자화폐제일주의로 본다.
- 5)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근대적 시민사회와 관련된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한다. 윤영민, 『사이버 공간의 정치』(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0), 37.

힘이므로, 국민 주권이란 결국 국민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국민의 뜻으로 공권력을 규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요, 따라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의사를 아는 장치가 중요해진다. 말하자면 여론이 중요해진다는 말이다. 근대 시민 사회에서 국가가 큰 권력을 지니게 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언론 기관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고 모여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자유 곧 언론의 자유는 그런 점에서 근대 시민 사회의 핵심적인 자유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전달하여 권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민의 의사는 고대 이래로 늘 정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인민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방법과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인민의 의사는 늘 간접적으로 추정되었고, 그만큼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 현안이 인민에게 전달될 통로가 없었으므로 인민들은 중요 현안의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교통로의 발달로 이동이 많아지면서 중심부의 일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통신 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중요한 정보가 유통되었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민이 알 수 있었다. 언론 기관은 어떻게든 고급 정보에 접근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권력자들이 무얼 하고 있는지 인민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견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점에서, 알리는 일 곧 정보 유통은 권력 분산의 핵심이다. 매스 미디어의 알리는 일은 쌍방향으로 일어난다. 권력 핵심부의 일을 인민에게 알리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그 의사를 다시 권력 기관에게 알린다. 국민 주권이 확립되기 이전의 정치 체제에서 인민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인민의 의사는 정보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근대 시민 사회에서 인민

의 의사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보가 된다. 그리하여 시민 사회에서 매스 미디어는 권력자들과 인민 양쪽에서 서로의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시민이라고 하는 정치 집단이 되는데 매스 미디어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가 소수의 정치인들의 일이 아니라 시민 전체의 일이 되는 데에는 정보의 유통을 담당하는 매스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고위 관리의 법정 출두 같은 것을 안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평생 가도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임금에 있던 시절과는 권력 관계가 크게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신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권력을 비신성화했다. 인민과 권력 핵심부의 거리를 상당히 좁혔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통신이 생기면서 정보 유통은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시민 사회에서의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는 실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 모여야 하고, 결집된 의사를 표시하게 위해서 모여야 했다. 교통 수단의 발달로 거리가 많이 좁혀졌지만 의사소통과 결집을 위해서는 여전히 거리의 극복이 문제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거리는 사라졌다. 가상 공간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 표시를 통해 개인은 어렵지 않게 시민이 될 수 있다. 공간의 문제가 사라지면 시간의 문제도 거의 사라진다. 그리고 관심의 문제만 남는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적 무관심이 큰 문제로 등장하지만, 적어도 관심이 있으면 언제든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은 권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단이 쉬워지면 그만큼 정치적 관심이 증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권력 기관으로서도 정보를 국민에게 쉽게 알릴 방법이 생겼으므로 웬만한 정보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⁶⁾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정보 공개법이 형

6) 어쩌면 우리는 칸트식으로, 알려야 하기 때문에 알릴 수 있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

성된 것도 그런 까닭이다. 국민들은 쉽게 정보에 접하고 전자 정부를 통해 안방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만큼 공권력과 거리가 극복되고 가까워진 것이다.

가상 공간은 실제 공간이 형성한 위계 질서를 없애면서 공간의 비신성화를 다시 한번 일으킨다. 사실, 위계 질서의 근원은 종교에 있다. 종교는 신성한 공간과 속된 공간을 나누고, 그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질서를 형성했다. 인간의 정치적 신분 질서 역시 그러한 성과 속의 이분법 질서와 연관되어 이루어졌다. 권력은 접촉 불가능한 신성한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보를 밖으로 유통시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근대 시민 사회에서 탈종교 현상이 일어나면서 모든 공간이 균등해지고, 공간의 균등화는 인간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모든 공간이 균등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간이 분배된 것은 아니다. 공간 그 자체의 위계 질서는 사라졌지만 공간의 소유에 의한 위계 질서는 없어지지 않았다. 기회 균등이 곧 만인의 평등으로 간 것은 아니다. 이 땅에 인간이 출현하여 하나의 자연 공간 안에 다수의 인위 공간을 만든 이후, 빈부의 차이에 따라 소유하는 공간의 차이가 생겼다. 그런 공간에 모여 의사를 표시하고 결집해야 한다면, 인민의 의사 표시는 근대적인 소유권의 위계 질서 속에 편입될지 모른다.⁷⁾ 그런데 원래 의사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은 소유를 넘어선 문제다.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도식으로 말하자면, 소유를 넘어 존재의 세계에서 참다운 의사 소통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통한 의사 소통이 소유의 벽에 막히는 것이 근대 시민 사회의 언론

다. 권력의 분산은 역사의 대세요, 국민의 알 권리가 최근에 강하게 주장되는 것은 그런 대세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공개되는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 그런 당위가 수단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7) 신분이 차별 없이 소유권이 보편화되면서 모든 인간에게 재산권의 이름으로 강력한 소유권이 돌아갔지만, 현실 소유는 빈부의 차이에 따라 많은 등급을 형성했다.

의 자유의 실상이다.

말을 들어줄 사람을 얼마만큼 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말할 수 있는 지위가 원천적으로 인민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권력의 근원이 인민이라는 것이다. 인민의 맘을 잘 살펴서 집권자가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집권자는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한다. 인민이 언어의 출처다. 간접적으로 추정된 인민의 맘은 집권자의 맘대로 모양을 갖출 가능성이 크다. 권력의 분산을 이루려면 인민이 그 맘을 밖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직접 들어야 한다. 그것이 의사 표시이고, 시민 사회에서 의사 표시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의사표시는 속마음이 무엇이든 간에, 표시된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의사를 표시하는 매체와 수단의 발전은 그런 점에서 인민 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민의 의사라는 것이 루소식으로 말하자면 일반 의지이고, 일반 의지는 개인의 의지의 총합이 아니다. 일반 의지는 매스 미디어나 국회 의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시된다. 그리고 일반 의지 곧 보편성 속에 개인의 의사는 무력하게 파묻힌다.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보편성의 횡포에 있다. 의사 표시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야 하는 인민들은 무력감 속에서 수동적이 되고, 매스 미디어나 전문가 집단이 여론을 주도해 나간다. 말할 기회가 인민들에게 균등하게 부여되었지만, 실제로는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을 확보하려면 결국 정치 집단으로서의 의사 표시가 되어야 하는 데 그러려면 공간을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그것은 근대적 소유권과 관련되어 비용이 드는 문제다.

표시된 의사는 개인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정치 집단의 의사 표시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사가 정치 집단의 의사가 되도록 엮어주는 매개 집단이 생긴다.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는 정당이나 거대 언론이나 이익 단체 또는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시민 단체가 생긴다. 그런 정치 매개

집단은 공간을 차지하면서도 존재할 수 있다. 거기서 많은 정치 비용이 들고,⁸⁾ 소유의 차이에 따라 정치 권력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제 가상 공간은 누구나 쉽게 모여서 자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의 민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른바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사안은 정당화된다는 얘기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 슈미트에 따르면 서양의 근대 국가는 기독교의 개념을 물려받았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민 주권으로 바뀌면서 정당화의 주체가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곧 정치집단으로서의 국민에게로 옮겨졌다. 정의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는 주체만 정해 놓은 것이다.⁹⁾ 그 주체에 의해 정당화된 것이 정의다. 근대 민주주의는 정당화의 주체로 국민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형성되고 결집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 주권의 원칙을 세우면서 국민의 의사로 결정한 것이 정당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의 의사 표시와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

가상 공간은 그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 절차와 결집 절차에서 간접 민주정치의 문제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이, 진정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는 민주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무엇보다도 개인은 속마음을 털어놓고 솔직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인민의 표

8) 이른바 사회적 거래 비용이다. 염재호, "사이버 민주주의: 정치의 실종, 시민의 출현", 『사회비평』23호(2000, 봄), 35.

9) Carl Schmitt, "L'enjeu d'une theologie politique", *Revue de Metaphysique et de Morale*, 2(1995), 206f. 물론 이런 주권 개념으로 권력을 이해하는 것을 미셸 푸코 같은 학자는 반대한다. 권력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참조: 콜린 고든 편, 『권력과 지식 -미셸 푸코와의 대담』, 홍성민 역(서울: 나남, 1991), 227f.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가상 공간의 민주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기 위해 우리는 근대 시민 사회의 권력 분산 시도를 주목하면서 얘기를 전개할 것이다.

시된 의사는, 개인의 의사 표시와 그런 개인의 의사가 모여 이루어진 집단 의사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시된 의사는 속마음과 다를 수 있다. 표시된 의사와 진정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권위주의적인 체제에서 말할 수하면 큰 일이 나는 경험을 한 곳에서는 더 할 것이다. 할 말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사회에서 가상 공간은 정치적으로 크게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가상 공간에서는 정보에 충분히 접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에 참가하면서 정보 해석 능력이 커지고 따라서 의사가 정확하게 형성되고 그 의사를 밖으로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다.

익명성은 무책임한 발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발언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물론 우리는 의사 소통과 교통의 궁극적인 형태는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대화는 대면인 것이다. 그러나 권위주의적인 사회에서 권위가 붙어 있는 곳도 얼굴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하고 대화하는 것은 권위주의에 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대 시민 사회에서 표시된 의사를 중시한 것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 곧 속마음을 그대로 밖으로 표시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개인의 내면에 형성된 의사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고, 또는 의사 표시 때문에 당할 불이익이 두려워 속마음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 것은 국가와 국민과의 불균등한 권력 관계를 강화시켰을 뿐이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부족 때문에 무얼 말해야 할지 모르고, 또는 마음놓고 말할 공간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밖으로 드러나는 슬로건일 뿐 실제로는 국가 권력의 지배를 감추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한 셈이다.

의사 표시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 공간은 언론 자유를 크게 발전시

키는 면이 있다. 마음놓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민주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의사'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개인이 살아난다. 씨티즌은 전통적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이 독립하여 소사이어티를 만들면서 이룩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류 역사에서 개인이 출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인은 실제로는 일반의지라는 보편성 속에 묻혀서 설 자리가 분명치 않았다. 어떤 면에서 전체 의사가 먼저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개인의 의사가 결정되는 식이다. 보편의 이름으로 전체가 개인보다 앞서는 것이다. 문명사의 각도에서 보면, 근대에 이르러 개인이 등장했는데, 집단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것으로 흩어진 개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시민이란 교양(보편성에 개별성을 종속시킬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만 책임적인 주체인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개별성을 보충하기 위해 나온 보편성이 오히려 개별성을 압도하게 되었다. 정치의 실체는 개인이 아니라 보편 의지의 주체인 국민이라는 집단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국민보다 작은 집단인 여러 가지 매개 집단이 생김으로써, 개인의 상실을 막으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런 매개 집단이 활성화되는 데도 가상 공간은 큰 역할을 한다.¹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씨티즌에 비해서 네티즌은 실제적으로 정치의 실체로서 등장할 수 있는 개인이다. 죽었던 개인들이 살아 일어난다.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집단 의사를 형성하는 데 가상 공간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치 역학에서의 표시된 의사는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집단 의사로서만 존재하는데, 이제 그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이 살아 있는 실체로서 능동적

10) 윤영민 교수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집단으로 시민단체와 같은 정치적 매개 단체를 꼽는다. 윤영민, *op. cit.*, 47.

으로 집단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권력의 정도는 의사 결정과정에서의 참여 가능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면, 가상 공간은 명실공히 높은 수준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권력을 국가로부터 시민에게로 조금씩 이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¹¹⁾

3. 가상 공간: 정보를 넘어

그런 점에서 컴퓨터 통신의 가상 공간은 단순히 새로운 통신 '수단'의 탄생이 아니라 그야말로 새로운 만남의 공간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의 정치적 효과는 단순히 하나의 정치 도구가 출현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포스터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¹²⁾ 교통 수단과 통신 수단은 이동을 통해 만남을 쉽게 하고, 그 만남은 교통을 예비한다. 기존의 교통 수단이 무언가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 편리함을 가져온 기계 문명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남'을 쉽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계를 넘어 인간을 해방하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만남은 교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은 타자를 거쳐 자기를 찾음으로써 자유를 찾는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상 공간은 만남을 쉽게 하는 정도가 기존의 교통수단과 질적으로 다르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의 논리에서 해방된 공간인 가상 공간에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가상 공간에는 누군가가 있다. 가상 공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아니라 20세기 말에 인류가 만든 인위 공간이므로, 거기에는 자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11) 그 결과 작은 정부와 작은 국가에 대한 논의가 정치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참조: 김석준 외, 『뉴 거버넌스와 사이버 거버넌스 연구』(서울: 대명출판사, 2001).

12) Mark Poster, "Cyberdemocracy: Internet and the Public Sphere",
www.hnet.uci.edu/mposter/writings/democ.html.

말을 들어줄 사람이다. 거기에는 명령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가상 공간이 기본적으로 탈 규범의 공간임을 뜻한다. '모르는 사람'과 탈 규범의 상황에서 만나다라는 것은 가상 공간이 획기적으로 새로운 교통로임을 암시한다. 만남을 획기적으로 쉽게 하므로 말미암아 가상 공간은 단순히 교통로가 아니라 교통이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교통로는 교통을 향해 어딘가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가상 공간은 교통이 일어나는 바로 그 곳이다. 만남을 쉽게 하면서, 컴퓨터는 단순히 통신과 교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통의 진원지 또는 교통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만남이 곧바로 교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가상 공간은 여전히 교통 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매우 쉽고 부담 없는 만남은 그 자체가 교통에 크게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과 탈 규범의 상황에서의 만남. 그 점에서 가상 공간은 권력이 없는 공간이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인류가 축제를 행하던 공간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축제의 공간은 모든 위계 질서가 뒤집어지는 곳이다. 가면을 쓰거나 또는 안면을 감추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어 익명성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권위와 권력이 공백 상태가 된 해방의 공간으로서 규범적인 일상성에서 벗어나 자유의 숨을 쉬는 곳이다. 물론 그러한 축제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해방의 힘이 일상으로까지 번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권력이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다.

사실,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이 활성화된 것은 근대 시민 사회에서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의 권력이 강화되는 현상과 연관이 있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전통의 공동체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주로 아는 사람끼리 알고 지내는 삶의 방식을 가졌다면, 근대 사회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인간 관계의 기본으로 설정하였다.¹³⁾ 제삼자와의 관계를 기본

13) 참조, 양명수, 『근대성과 종교』(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82-85.

관계로 내세움으로써 인간 관계를 합리화하고, 공공성의 영역을 크게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상한 정신 세계를 기준으로 인간 관계를 구성하지 않고, 물질을 놓고 벌어지는 이해 관계의 충돌을 중요한 과제로 정면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각자가 자기 몫을 제대로 찾으려 하는 정의론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이는 사람이라도 합리적으로 처리할 줄 알아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는 사람이라고 사적인 정이나 권위의 인정이 작용하면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없어서 결국 약자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것은 약자로 하여금 자기 몫을 찾게 함으로써 권력의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간에서 만나는 만남이란 아는 사람 위주로 이루어지기 십상이다.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면에서 정체가 일치해야 모임이 가능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나칠 수는 있지만 만날 수는 없다. 어떤 목적을 갖고 만난다는 점에서 실제 공간에서의 만남은 어떤 규범성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그 누구는 원칙적으로 어떤 면에서도 정체가 일치하지 않는 제 삼자다. 물론 가상 공간에서도 끼리끼리 만나는 모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타자의 정체를 알고 들어가는 경우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의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역시 정체를 불투명하게 하고 만나는 요소를 질게 깔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탈규범의 상황에서 정체가 불투명한 채 만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 분출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인간적인 만남의 시작일 수도 있다. 상대의 신분이나 연령 따위를 모른 채 만나는 것은,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만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인류는 그런 독특한 만남의 공간을 하나 갖게 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류가 가상 공간이라는 새로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 태초에 시간과 공간이

생김으로써 세상이 생겼다면,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김으로써 또 다른 세상이 생겼다. 독특한 삶이 펼쳐질 가능성의 공간이다. 물론 그것은 현실이 아닌 잠재적 현실(virtual reality)이요, 육체가 없는 자아들이 떠도는 공간이다. 로빈스의 말처럼 거주자는 없고 방문객만 있다고 할 수도 있다.¹⁴⁾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의 형태가 가능하다.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방랑하는 인간(homo viator). 정착은 언제나 어떤 이데올로기를 수반한다. 이데올로기를 통해 자기 정체체를 구성하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 자아를 잃어버리는 계기이기도 하다. 방랑하는 인간은 어디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비판을 수행하는 인간이다. 정체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우며 새롭다. 만일 가상 공간이 방랑하는 인간의 모습을 구현하는 공간이라면, 가상 공간에는 정체성(identity)보다는 타자성(alterity)이 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아(無我)를 통해 자아를 찾는 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가상 공간의 이용자가 정체체가 불분명한 것은 타자에게 개방된 진정한 자아를 위한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¹⁵⁾

탈규범적 공간의 의미도 그렇다. 실제 공간은 근본적으로 규범의 공간인 반면에 가상 공간은 무법 지대는 아닐지라도 규범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이 그렇고, 정체체가 불분명한 것이 그렇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닉네임을 쓰는 것도 그렇다. 이름에는 지금까지 그를 구성해 온 사회의 규범이 들어 있다.

14) 이종관, “가상 현실의 형이상학과 윤리학”, 『철학』54집(1988), 340.

15) 다음과 같은 설명도 같은 얘기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정보화 사회에서 무한히 제공되는 외부 세계와 접속 기회를 누리는 자아는, 이러한 탈중심화 능력을 자신의 신체나 가족에 의해 형성되는 폐쇄성을 넘어서 외부세계와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자신을 중심을 찾는 가운데 발휘함으로써, 다면적 자아로 더욱 유연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다면적으로 유연화된 자아들로 형성되는 공동체도 고정적이고 경직된 연대에 기초하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유연한 유대 속에서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이종관, *op. cit.*, 348.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규범을 받아 태어난다. 자연 공간은 사실은 사회적 공간인 셈이다. 아버지란 이름도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 이미 갖은 사회 규범과 권위가 들어 있는 사회적인 개념이듯이 말이다. 가상 공간은 정체 없는 자아들이 이루는 규범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아버지 없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기존 질서에 대립되는 힘이 축적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버지 없는 공간은 제 아버도 몰라보는 무제한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의 도덕 규범에 들어 있는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다. 인류 전체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실험을 가상 공간에서 시작한다. 특별히 이데올로기 비판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 없는 만남이라는 것이 기존 규범의 억압을 탈피하는 기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규범의 가상 공간은 새로운 도덕을 낳을 수 있는 잠재 공간이다. 차별 없는 차이가 공존하는 세계를 만든다. 이것은 일상 생활에 들어와 있는 권력 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만드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다. 기존의 약자들이 가상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까닭도 거기에 있다.

알고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권력 관계는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그 도덕은 대개 차이를 차별로 만들면서, 그 차별을 유지하는 쪽으로 형성된다. 인간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도덕 규범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누리는 쪽과 늘리는 쪽이 있는 셈이다. 기존 사회 질서에 아주 중요한 차별일수록 말도 못 꺼내게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를 보면 적서의 차별, 신분 차별,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남녀의 차별, 어른과 아이의 차별,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차별 따위다. 그런 차별은 대개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그것을 거스르는 말이나 행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나 '짓' 일 뿐이다. 소리일 뿐 뜻을 가진 말로 쳐주지 않고, 짓일 뿐 의미 있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당한다. 그것이 실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가상 공간은 탈규범의 공간으로서 기존의 억압을 벗어나 선악의 관념을 새로이 정립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사람은 그런 공간에서 규범 없는 자유의 숨을 쉰다. 사회의 약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약자들은 가상 공간에서 마음놓고 할 말을 한다. 실제 공간에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어줄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할 말은 언어로 나오지 못하고 언어 이전의 언어로 남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할 말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예를 들어 청소년을 보자. 청소년들은 사회 규범의 피교육자로서 억압받는 자들이다. 그들은 태어난 이후로 길 들여져야 한다. 그것은 인간에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다. 물론 어른들도 규범의 피해자이지만¹⁶⁾ 그들은 어느새 규범을 교육하고 강요하는 가해자가 되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은 당연히 가상 공간의 최고 이용자가 된다. 명령자가 없는 가상 공간에서 그들은 해방을 만끽하고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간다. 그들이 채팅하면서 언어를 파괴하는 현상은 언어에 들어 있는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은유를 통한 새 세상을 꿈꾸는 것도 언어이지만,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한 억압의 이데올로기 역시 언어에 들어 있다. 언어는 인간이 만드는 세상 질서의 밑천이다. 그러므로 언어를 깨는 것은 세상을 깨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언어의 파괴를 통해 규범이 파괴된 세상을 넘본다. 언어의 존재론적인 성격을 최대한 죽이고, 의사 소통의 기능만 살린다. 그런 점에서 가상 공간이 테크놀로지의 공간이듯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 역시 기술 언어요, 기능 언어다.

원래 언어는 표지판 같은 기호와 달리 다의적이다. 그런 다의성으로 말미암아 언어의 뜻은 삶의 뜻을 만든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가상 공간에서 언어를 다시 기호화함으로써 언어의 다의성을 파괴하고, 따라서

16) 권력 행사의 주체는 없고 권력 효과만 있다는 푸코의 견해를 우리는 모든 인간이 기존 도덕 규범의 피지배자라는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참조, 폴린 고든, *op. cit.*, 247.

삶의 의미로부터도 멀어진다. 무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탈의미의 세계를 지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의미 중심의 권위를 파괴한다. 거대 담론은 항상 삶의 의미와 함께 전개되지만, 언어 파괴를 통해 거대 담론과 멀어지면서 의미가 만들어낸 교훈과 훈계로부터도 멀어진다.

탈의미와 탈규범은 성의 일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인간 사회에서 성도덕이야말로 원시 시대 이래로 가장 강력한 규범을 이루어왔다. 그러므로 탈규범적인 가상 공간에서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은 성의 일탈일 수밖에 없다. 실제 공간을 이루는 기초에 성도덕이 있었던 만큼, 가상 공간에서는 기본적으로 성도덕의 파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상 공간은 욕망이 난무하고 리비도의 과잉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욕망의 억압보다는 승화가 낫다. 가상 공간에서 보이는 과잉은 억압을 해체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욕망의 억압을 해체하면 무질서한 자기 붕괴로 갈 수도 있지만, 인류가 억압에서 벗어나 욕망의 승화로 가는 길을 넘보는 것일 수도 있다.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상 공간이 주는 문명사적인 의미 또는 인류학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다.

약자 중에서도 성도덕이 만든 약자는 가장 혹독한 차별을 받아 왔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력 분산을 보기 위해 동성애자를 예로 보자. 사실 동성애는 다른 어떤 성도덕보다도 엄하게 다루어져 왔다. 종교학자들은 가장 큰 차이를 성(聖)과 속(俗)의 차이로 든다. 차별의 기원도 성에 속했는가 속에 속했는가에서 시작되었다. 속된 것이 성스러운 것을 건드리면 부정 타는데, 것처럼 부정 타는 것은 성과 속의 차이를 없애므로 세상 질서를 붕괴시키는 것으로 금기시되었다. 그런데 늘 가장 강력한 금기는 성(性)과 관련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동성애는 가장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회 규범에 눌려서 자기 정체성을 감추어야 했다. 그러나 탈규범적인 가상 공간에서 그들은 동성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어엿한 사회적 존재로 등장한다. 자신

들의 입을 모아 힘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도덕 규범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차별을 철폐하도록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가상 공간은 비주류의 사람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 가상 공간이 출현한 이래 흔히 학자들은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만,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주류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더욱 뚜렷하게 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도덕에 물들어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은 탓에 아직 얼굴 들고 나서서 주장할 수 없는 사안들을 가상 공간에서 말할 수 있다. 새로운 논쟁거리로 만들 수 있다. 인류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규범과 관습에 과감하게 의문을 표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거부감을 주지만 기존 도덕 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다수로 하여금 흠칫 놀라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현상들은 타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서 진정한 교통에 다가서는 것이다. 가상 공간에 들어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정체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이나, 약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힘을 규합하는 것은 모두 인류의 진정한 교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교통의 증가는 거시적인 차원의 권력 분산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들어와 있는 미시 권력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가상 공간의 잠재력을 인류의 교통에 이바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가상 공간이 실용적인 정보의 교환에서 출발했지만, 정보를 넘어 속마음의 어우러짐으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글을 맺으면서

우리는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 가상 공간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얘기했다. 기존의 학자들과 달리 가상 공간이 교통 수단이라는 점을 중심으

로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가상 공간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옛날의 교통로가 무역을 하는 상인들과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정복자들에 의해 개척되었듯이, 새로운 교통로인 가상 공간도 상업주의와 미국의 헤게모니가 지배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는 인터넷의 상업화와 함께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인터넷이 미국의 방위 체제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인류 역사에서 신기술이 모두 무기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그렇다. 그런 점은 인터넷의 미래에 대해 결코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이미 자크 엘룰 같은 사람이 말했듯이, 인간이 개발한 기술이 결국 인간을 지배하리라는 예상¹⁷⁾도 권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거나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한 것이다. 발달된 기계에 힘입어 소수의 엘리트가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인류를 제거하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펼치는 학자들도 있다.¹⁸⁾ 멀티미디어화되어 가는 인터넷의 발달 추세를 보건대, 의사소통의 쌍방향성이 약화되고 계급적 단절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⁹⁾ 그렇게 되면 교통로는 일방적인 정복의 통로가 되고 말 것이다. 자본가나 소수의 지배계급이 권력을 휘두르는 체제가 되고 말 것이라는 얘기다.

가상 공간이 인위의 인위 공간으로서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은총을 모르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다.²⁰⁾

17) 자크 엘룰의 견해에 대해서는, 양명수, 『호모 테크니쿠스』(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7) 참조.

18) 참조 김석준 외, op. cit., 127-131.

19) 류승호,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공동체", 『창작과 비평』95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7, 봄), 350-352.

20) 양명수, 『근대성과 종교』, op. cit., 174-179. 인간은 자연 공간 안에 '집 안'이라고 하는 인위 공간을 만들었는데, 가상 공간은 집 안에서 다시 컴퓨터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다. 인위의 인위다. 집 안만 해도 바깥 자연과 변증법적인 관계에 있는데, 컴퓨터 안은 자연과 너무 떨어졌다.

그것은 역시 자본주의의 특성과 연계되어서 소비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많다. 보들리야르가 지적한 대로 오늘날 고도의 자본주의는 상품의 소비가 아닌 기호의 소비를 창출했는데, 코드화된 데이터와 이미지가 지배하는 가상 공간에서는 기호의 소비가 극도에 달할 수 있다. 문제는 금욕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의 승리만 남게 된다. 앞에서 우리는 가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의 파괴를 권위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보았는데, 부호화된 언어가 가져올 정보 유통은 결국 자본 유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사실 이런 문제 역시 근대 이후에 꾸준히 제기된 것이고 가상 공간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몸과 몸의 만남이 없는 곳에 코드화가 가능하다. 그래도 우체국 아저씨가 배달해 주는 편지는 코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화부터는 다르다. 인간의 음성이 진동과 주파수로 바뀐 후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음성 그대로가 아니라 부호화된 소리다. 가상 공간에서 전달되는 이미지는 굉장한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부호로 조작된 이미지다. 통신 기계를 거쳐 전달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그 자체가 아니라 수치로 계량화되고 코드화된 것들이다.

사실 근대 과학이 처음부터 그랬다. 비슷한 것은 같은 것으로 보면서 과학이 가능했다. 그래야 자연 현상을 수학화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산업으로 이어지면서 표준화가 가능했다. 오늘날 세계화 시대에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무역에서 나타나는데,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것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개체들의 차이를 없애고 비슷한 것을 같은 것으로 보면서 근대 과학과 산업화 그리고 교통 통신 수단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비슷한 현실이 현실이 되는 것은 가상 공간에서 극대화된다. 수량화되고 코드화된 데이터들이 이루는 현실이 가상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가상 현실과 현실이 혼동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가상 현실은 매우 생생하기 때문에 현실 같다. 현실보다 좀더 강하고 생생하기 때문에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다. 현실과 비슷한 것이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셈이다. 현실과 수치로 바뀐 현실의 차이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가면서 더욱 좁혀졌다. 근대 과학의 발전과 잇대어 있는 서양의 근대 관념론의 영향도 크다. 데카르트 이후 현실이란 인간에 대한 현실만 인정하기로 했고, 칸트에게 물자체는 별로 중요치 않았으며, 헤겔은 개념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인간의 눈과 생각을 거친 현실을 현실로 보는 것은 결국 인간의 손을 거친 인위적인 현실을 진짜 현실로 보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마크 테일러 같은 사람이 주장하듯이 가상 현실은 헤겔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²¹⁾

그러나 헤겔의 이상은 정치적으로는 결국 동일성의 철학이 가져오는 전체주의적 성격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서구 특히 미국에서 나온 인터넷은 서구의 자본과 문화의 세계 점령을 가져올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견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일이다. 그야말로 예견일 뿐이다. 그래서 예측하는 사람의 세계관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 기술은 인간의 책임을 한층 더 요구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인류의 복지에 크게 이바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댐을 건설하여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지만, 그 댐이 터지면 도시 전체가 물바다가 될 수 있는 것과 같다. 현대 과학 기술은 언제나 그런 식이다. 좋은 데 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파괴력도 크다.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가상 공간이 무슨 동기로 비롯되었든, 인류는 그 새로운 공간에서 독특한 삶을 모색하고 있다. 부작용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진보를 향한 암중 모색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진보를 우리는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보

21) 줄리안 스텔러브라스 "사이버스페이스의 탐험", 『창작과 비평』91호(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6, 봄), 363-366.

려고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수단인 한, 가상 공간은 수단을 개발한 자들의 권력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만일 인터넷이 교통을 통한 활성화로 가지 않고 특정 세력의 지배가 강화되는 쪽으로 간다면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 두 갈래 길에서 인류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만일 인류가 자신이 개발한 수단을 다스릴 만한 책임적 주체의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모두의 공멸로 갈 것이다.